



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기술표준정보과 정성자

내게 있어 "사랑"이란 단어는 낯설게만 느끼며 생활해 온 것 같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각자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 여겨진다.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에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눈먼 장님들, 두 다리를 잃고 거리에서 행상하는 불우한 이웃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사랑을 고파하는 이가 너무도 많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한 공동체에서 이들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이리라. 부족한 것은 함께 나누고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리라.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알팍한 핑계로 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참사랑은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행동이며 특히, 우리들은 여유 없는 속에서도 여유 있

는 것처럼 심신의 건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하는 젊음이 필요하리라 본다.

나는 사랑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럼 자연히 사랑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 같다.

예전 연속극에 죽음을 앞둔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이 '나는 네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길 바란다' 하니 아들의 물음이 '아름다운 사랑이란 무엇이죠?' 하니 엄마의 대답이 '어떤 사람이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네 목숨이 아깝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너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랑이란다.' 요즘 우리들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가볍게 쓰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엄마의 말씀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때 그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인내, 희생이 힘겨움이 아닌 행복으로 느껴질 때 그 누군가의 단점조차도 아픔으로 감싸주고 싶을 때 우리들은 사랑이란 말을 당당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쌓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나 자신은 물론 이런 생각으로 살아 왔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기 보다는 깨우침에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우선 기쁨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재산도 지식도 내 힘으로 쌓고 싶었다.

나의 어릴 적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작가였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입시학원을 다니며 대학진학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아직도 실패의 연속이고 그 후유증으로 혹독하게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후회가 없다.



꿈이 현실화 되지 않을 때쯤 나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 되었고 그로 인해 기대감의 상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었다.

성당 공동체 생활 안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대학 졸업후 사회복지과 행정조교와 사회복지서비스 마인드 정신으로 나는 나의 삶의 평화를 찾기 위해 조금씩 겸손함을 배우며 장애인 봉사로 주일을 보내고 있다.

처음엔 봉사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지만. 그로 인한 상실감과 마음 한구석으로는 '수박 겉 핥기'식의 행동들,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는 내 심적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사회복지과 조교시절은 전공과는 무관했지만, 나는 남들에겐 눈에 보이는 무늬만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로 인한 실망과 소심, 나의 아집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향유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게 더욱 나의 냉소적인 성격을 항상 겸손하게 바꿔준 계기가 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당 공동체에서 무지개반 장애인 교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였다.

장애우라는 시선은 사실 내겐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 보았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순수하고 맑은 아이의 눈동자라는 것이다. 아이들과 야외 행사를 갈때면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 아이들의 장애성은 참 다양하다.

얽전한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기본이며, 침을 흘리며 마냥 좋아 웃는 아이들..

또 다른 아이는 무심코 바라보기만 하고, 또 한 아이는 처음엔 많이 놀랬다.

고무밴드로 자기 코를 얹누르고, 고무밴드로 모든 행위를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고무밴드를 못 만지게 하면 모든 것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만다.

그리고 일명 '철도박사'라는 별명으로 우리를 전국 일주와 철도여행을 시켜주는 남학생..

갑자기 말을 하고자 할 때..“선생님! 강원도는 원주에여. 그리고 충북 영동선, ‘ 휴게소엔..경북 안동’이런 아이..

모든 과자를 잡식성으로 모두 해치우는 학생..

병원착오로 인해 장애가 된 예쁜 여자 아이는 참 맑고 투명했다.

계단을 무서워 하는 아이,자꾸 안아주기만 하길 바라며 상대방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아이..

모두가 내겐 어려운 숙제 였다..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한다.

나는 아직도 사랑이란 말이 조심스럽고 그 말을 밖으로 보내면 다가오는 의무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때로는 기쁨으로 쓰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종교의 한 분 인신 하느님이시기 때 문일지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내포되고 표출하고자 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나는 ○○를 사랑해’와,큰 ♡를 손으로 그리는 울동을 모두 좋아 한다.

모든 말이 다르더라도 ‘사랑’이란 단어는 참으로 모든이에게 진실함을 주는 것처럼 평화를 주는 것 같다. 어색했던 봉사자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본다.

여태까지는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했던, 내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했던 봉사였다.

내 자신이 얻는 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내팽계치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내 스스로가 사랑이 되려 하는... 아니면 의무감에서만 했던 그런 봉사였다.

그렇지만 ‘봉사와 희생이란 무엇일까? 진정으로 그

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은 ‘서로 남의 짐을 저준다는 것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저준다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봉사와 희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다.

오늘도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오늘 나의 장애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장애는 나의 아집과 나의 자만, 이해 타산은 아니었는지?나 자신의 인생에 하루하루를 점검해 가며, 늘 나에 대한 부족함과 겸손함을 인지하면서 반성이라는 토대를 두고 이름답게 살고 싶다.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좀더 크게, 좀 더 넓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제는 못한 사랑에서 벗어나 정말 사랑스럽고 기쁜 모습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기쁘게 희생하려 한다.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랑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며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내용을 적어본다.

주인공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 받지 못하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이 고통일지라도 그 사람이 준 것이기에 내게는 소중한다.” 나 또한 이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겪게 되는 고통과 인내와

희생마저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기도하며 노력해야겠다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씩 채색되어 가는 스케치북 위에서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손수레의 바퀴를 달은 삶으로 그려지기 위해 노력하며 가슴에 간직하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것은 쉬이 잊지 않고,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 버릴때가 많다.

이젠 진정으로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남침이 없는 것은 사랑이겠으며, 사랑의 대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는것 같다.

우리 마음의 발에는 아름다운 꿈나무만 자라난다고 하듯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얼굴이지만 같이 슬퍼할 수는 있고, 같은 생각하면서 살 수는 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모두가 좋은 생각이니까.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일거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마음일수도 있고, 세상의 것에 쫓기는 여유의 부재일수도 있을 것이다.

눈은 “마음의 문” 이라고 했다.

우리 가슴속에 내 것으로만 가득차 있다면 함께하는 “우리”라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밖의 모든 것, 돌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안의 모든 것, 추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해도 배푸는 사랑..그것이 사랑일지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깨달음의 추구가 아닌 깨달음이 실천이다” 라는 말처럼 항상 행동으로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자고 하고 싶다.

내 삶의 남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빛과 소금의 초석’ 처럼, 어린왕자의 순수어린 꿈처럼 더욱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싶다.

